

1950년대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정치

윤국희*

염상섭의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염상섭의 『대를 물려서』를 힘을 가진 여성인물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여성서사로 보고, 그 정치적 의미를 탐색한다. 『대를 물려서』는 1958년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당대 현실을 젠더적인 관점으로 포착하는데, 이는 염상섭의 1950년대 후반 단편소설들에 나타나는 ‘아들-가장의 심리’의 뒤집힌 형상인 ‘어머니-호주의 심리’로 재현된다.

염상섭은 무소속 국회의원의 입당 문제와 세 가정의 정치적, 경제적 ‘대물림’에 주목한다. 전쟁미망인과 납북미망인 편모가정을 중심으로, 남한 단독정부 1세대 정치인과 그 자녀 세대의 복잡한 연애관계를 통해 그려지는 것은 전후 사회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이다. 정권말기 ‘무소속’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힘을 잃어가는 ‘아버지-가장’의 세대와, 개인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법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머니-호주’의 형상은 각각 1958년 선거법 개정과 부정선거, 가족법 제정을 둘러싼 여성운동사의 맥락을 반영한다. 그리고 염상섭은 그 다음 세대의 자리에 ‘아들/사위’가 아닌 가족제도적 규범과 낭만적 사랑의 신화에서 벗어난 ‘딸들’의 삶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놓는다. 정치소설이자 여성서사로 쓰여진 『대를 물려서』는 1950년대 전후 사회를 세대와 젠더적 감각으로 살펴보려는 문학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염상섭의 1950년대 장편소설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1950년대, 염상섭, 선거법 개정, 가족법, 여성호주, 가족제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이 금고지기는 세상을 하직하려 한다. 조부의 일생은 말하자면 이 금고를 지키기에 소모되고 만 것이다. (...중략...) 조부는 역시 자기를 이 속에 가두고 가려 한다. 덕기의 일생은 이 금고 앞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을 엄명하였다. 그리고 그 금고지기의 생애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왜 의심이 부쩍 들었나? 왜 지금 이 금고를 보살피러 나왔는가? — **내 일생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대한 일은 이 금고 여닫는 것과 사당 문을 여닫는 것 두 가지 밖에 없단 말인가? 마치 간수가 감방문을 여닫듯이. 그리고 그 중대(?)한 사업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¹ (강조: 인용자)

『삼대』의 조의관이 죽기 직전, 덕기에게 대물려주는 것은 “[금고의]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²는 가부장의 운명이다. ‘봉제사’도 하지 않는 아들 상훈에게는 ‘삼백 석’을, 손자 덕기에게는 ‘천 오백 석’의 재산을 상속하는 이유도 바로 그가 제사와 호주 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조씨 집 재산’이 분배된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처럼, 1949년 10월 『문예』에 발표된 「일대의 유업」에는 지주부 영감이 일생을 바쳐 장만한 집 한 채를 “일생일대의 큰 사업이나 남기고 가는 듯”³ 명의를 장남 기현으로 변경하고 그 후견인으로 아우로 둔 사정이 자세히 서술된다. 상속분 중 여자들의 몫은 자신이 죽고 3년 후에 집행할 것을 유서에 적어두었던 조의관처럼, 지주부 영감 역시 33살의 젊은 아내가 “철마 자식을 거리에 내얹히구 집 팔아들고 서방맞아 갈까”⁴ 싶어 친모에게 호주 상속인인 아들의 후견권

1 염상섭(1987a), 『삼대』(염상섭전집 4), 민음사, pp. 264-265.

2 염상섭(1987a), p. 254.

3 염상섭(1987c), 「일대의 유업」, 『중기 단편』(염상섭전집 10), 민음사, p. 205.

4 염상섭(1987c), p. 205.

도 주지 않고 재산과 호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이러한 가부장 인물들의 염려는 지적되어온 바처럼 작가 자신의 가부장제 원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곧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까지의 일상적인 풍경이기도 하다.

조선민사령 11조에 의해 조선의 관습대로 친족·상속과 관련된 민사를 해결했던 사정에 따라, 식민지 시기 제사상속은 호주상속과 함께 장남에게 가독 상속되었다.⁵ 피상속인이 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나 서양자를 들여서라도 ‘사당과 금고’를 지킬 호주권을 상속해왔다. 이러한 관습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었던 신민법 이전까지 유지되었는데, 새로운 가족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헌법상의 남녀평등에 대한 해석과 여성 인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었다.⁶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호주 및 재산의 상속권과 자식에 대한 친권 행사 등 ‘처와 모’, 그리고 ‘여자인 자(子)’의 법적 권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958년 12월부터 1959년 12월까지 1년간 『자유공론』에 연재된 『대를 물려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매우 즉각적인 반응으로 쓰여졌다.

일생의 가장 중대한 일이면서도 간수와 같은 심정으로 덕기가 상속 받은 ‘사당과 금고’는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뗏줄과 돈의 원리(이해관계)’를 상징한다. 김윤식은 『삼대』가 돈의 원리와 이데올로기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큰 원리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보았다.⁷ 조의관이 품고 있는 삶의 감각은 서울 중산층의 일상적 삶의 감각이자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엄격함”(p. 533)이며, 김병화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적 층위는 덕기에게 연결됨으로써 두 가지 의미층이 유기적으로 조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감

5 김일주(2014), 「일제하 친족 관련 법령과 호주권」,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홍양희·양현아(2008),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사회와 역사』 79, 한국사회사학회, pp. 180-181.

6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출판부, pp. 42-45, 59-60.

7 김윤식(1987),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 262.

각이 사라졌을 때 ‘일상적 삶의 평면’만이 남게 되고, 「일대의 유업」(1949)은 그 최대치이자 한계점으로 평가된다.⁸ 그렇기에, 『대를 물려서』를 포함한 1950년대 이후의 작품세계는 “늙은이의 미묘한 심리묘사가 아니면 일상적 삶의 윤리감각, 핏줄과 물질적 이해관계의 세계”(p. 870)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950년대 후반의 단편소설들에 나타나는 ‘핏줄과 물질적 이해관계’가 다분히 모계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윤식은 「돌아온 어머니」(1957)와 「법 없어도 사는 사람」(1958)에서 반복되는 ‘어린 아들을 버린 어머니의 귀환’을 염상섭 후기 문학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보고, ‘모계의 핏줄’을 둘러싼 애착과 증오 사이의 균형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적한다.⁹

그렇다면 같은 시기, 『삼대』의 정치적 감각과 「일대의 유업」의 최대치의 삶의 감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연재된 『대를 물려서』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본고는 1950년대 후반 단편소설의 ‘모계의 핏줄’과 ‘돈의 원리’를 둘러싼 ‘아들-가장의 심리’가 장편 『대를 물려서』에 ‘어머니-호주의 심리’라는 뒤집힌 형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과 조건 사이에 놓인 정권말기의 풍경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를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대를 물려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젊은 세대』와 함께 염상섭 후기 문학의 일상성과 정치성, 윤리성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새로운 세대의 사랑 문제를 부모세대의 삶의 조건 내지는 결혼관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한다는 김경수의 지적¹⁰ 이래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작품에 나타나는 친구세대의 연애가 교차되는 양상과 그 의미에 주목한다. 1950년대 전후라는 역사적 시공간, 특히 서울 중산층의 일상과 연애를 통해 세

8 김윤식(1987), p. 811.

9 김윤식(1987), pp. 872-875.

10 김경수(1997), 「전후 염상섭 장편소설의 전개」, 『서강어문』 13, 서강어문학회.

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한편으로는 구세대의 무능력함과 난잡한 애정관이 무기력한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¹¹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모랄을 유지하고 있던 중류층의 시민과 젊은 학생들에게 민주국가 건설의 주체로서의 가능성”¹²을 발견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¹³

40대의 미망인이자 호텔 여사장인 주인공 박옥주와 그 딸 신성이 만드는 애정의 삼각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두 명의 남자 주인공 한동국과 안익수의 행보를 두고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상반된 두 가지 관점 모두에는 작가가 여성인물들을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인물로 재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했을 때 비로소

-
- 11 정소영(2016), 「해방 이후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경(2019), 「염상섭 후기소설 연구: 해방 이후 민족공동체의 서사적 상상」,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정중현(2014),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 13 이때, 허윤과 공중구는 젠더적 관점으로 작품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문제의 식을 공유한다. 먼저, 허윤은 1950년대 전후 문학에서 남성성이 탈구축되는 양상을 논의 하며, ‘남성성의 비수행적’ 형상으로서 ‘국가건설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남성주체’로서의 한동국과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멜랑콜리아적 주체’로서의 안익수를 분석한다. 작품에서 “결혼을 통해 가족을 건설하고 건강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젠더 규범은 굴절”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남성인물들에 한정되어 작품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허윤(2013),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Undoing)」,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이와 대조적으로, 공중구는 여성인물에 초점을 두고 신구세대의 대립을 통한 여성의식을 분석한다. 그러나 여전히 구세대 여성인 박옥주는 주도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해타산과 물질적인 욕망에 포획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작가는 신성과 삼열이라는 신세대 여성인물들의 여성의식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때의 ‘여성의식’은 단순히 “젊은 여성들의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주체적인 모습”(p. 93)으로만 해석되고 있어, 작품의 남녀 인물들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공중구(2021),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의 여성의식과 사회·정치적 의식—《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1, 한국현대소설학회].

구·신세대 남성인물인 한동국과 안익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세대를 상징할 수도, 역으로 ‘긍정적인 모탈’과 ‘민주 시민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는 의도적으로 박옥주에 대한 일방적인 묘사와 서술을 피하고 있으며, 한동국과 안익수 역시 각자의 팜프파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정신적 건강함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남녀의 연애와 세대교체의 양상을 그리면서도, 이를 단순히 선악의 대립구도를 통한 멜로드라마적 감정의 과잉과 윤리적 해소의 서사로 풀어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지금까지의 연구가 지적해온 것처럼, 『대를 물려서』는 실제로 작품이 연재된 1958년 전후의 서울을 배경으로 국제적 정세 및 국내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쓰여졌다. 작품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958년 봄에서 시작되어 같은 해 가을에서 마무리되며, 『자유공론』에 1958년 12월부터 1년간 연재되었음을 고려할 때 작가는 연재가 시작되었던 1958년의 처음으로 돌아가 1년의 시간을 다시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정권말기의 세대교체를 앞두고 암시되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젠더화된 방식으로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염상섭은 1950년대 작품들에서 여성들이 경험했던 사회적 조건들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왔는데, ‘가장어 없는 집안’의 분위기와 미망인의 경제 활동과 재혼 문제 등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¹⁵ 『대를 물려서』 역시 전쟁미망인과 딸, 그리고 남북미망인과

14 “가부장제와 민주주의의 충돌과 균열”(pp. 168-169)로 작품을 분석한 최애순의 지적은 이 지점에서 유효한데, 중산층의 보수적인 가부장적 대물림 의식이 가정 내 세대문제로 인해 허물어지고 있음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익수를 친미적 성향의 엘리트로, 삼열과 신성은 각각 전통적 여성과 아프레겔을 상징한다고 보고, 친미 엘리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경향에 의해 중산층의 봉건적 삶의 방식이 균열되고 있다는 분석은 각 인물들에 대한 다소 피상적인 접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최애순(2013), 「1950년대 서울 중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15 “명신은 철나서부터 남자라고는 없는 집에서 어머니 그늘 밑에서 자라났고, 시집을 갔대야 남편 밑에는 단 일 년 지냈을까, 기죽을 뿔뿔 펴고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규모

아들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편모 가정에 있어서 '상속'의 문제이다. 작품 초반에 나타내는 자녀들의 연애 및 결혼에 대한 부모들 각각의 속셈은 작품이 결국 명동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박옥주의 재산을 누가 상속할 것인가, 즉 누가 호텔을 물려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들의 고민은 모두 현재 피상속인이 여호주로 추정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고는 『대를 물려서』를 경제적·정치적 힘을 가진 여성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여성 서사로 보고, 그 결과 '어머니-딸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대 잇기가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는 양상을 살피고, 아버지의 정치이념과 박옥주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못하는 아들 익수의 모습이 두 여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과 겹쳐지고 있음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박옥주라는 여성인물이 호주이자 재산 피상속인으로서, 공적·사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는 양상을 살핀다. 이때, 그녀가 부모 세대의 여성들을 '여성동지회'라는 정치적 모임으로 연합시킴과 동시에, 자녀 세대의 연애 판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삼열이 주체적인 여성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 지점을 분석한다. 이는 여성인물에 대한 부정적 재현 혹은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는 일괄적인 평가, 그리고 남성인물 중심의 계보를 통해 작품의 주체의식을 분석해왔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세대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작가의 문학적 고민을 1958년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가 짤이고 거북살스러운 영감의 눈앞에는 잠간도 지내기가 벅찬 것이었다.”(강조: 인용자)[염상섭(2017), 『미망인』, 글누림, p. 33]

2. 가부장‘들’과 대를 잇지 못하는 아들

『대를 물려서』는 세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얽히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이야기이다. 주인공 박옥주는 전쟁미망인으로, 한동국을 정치적·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이성적으로도 교제한다. 그녀는 자신의 옛사랑인 남북 정치인사 안도의 아들 안익수와 자신의 딸 신성을 결혼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익수는 동국의 딸 삼열과 약 6년 간 교제한 사이였으나, 옥주는 감정과 자본을 도구로 삼아 세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여 놓는다. 익수는 유혹에 넘어갈 위기에서 신성을 선택하지 않은 채 삼열에게 달려가지만, 이미 익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삼열과 재결합할 가능성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품은 끝난다.

작품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익수의 아버지인 안도와 삼열의 아버지인 한동국이다. 두 사람은 “중학 동창이요 정치노선이 같다 해서도 절친한 사이”¹⁶로 ‘독립운동’도 함께 했던 것으로 서술된다. 안도는 초대 국회의원으로 43세에 9.28 수복 직전 협상파라는 이유로 이미 북으로 끌려간 남북인사이며, 한동국 역시 1958년 5월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이 두 가부장들은 서술의 층위에서 의도적으로 동일시된다. 작품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안도가 당선되었던 저녁과 한동국이 당선된 저녁이 겹쳐진다. 익수가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 본다는 당선 기념사진은 안도라는 정치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의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이때, 안도와 동국의 기념사진이 한 쌍을 이루게 되는데, 과거 안도의 기념사진에서 뒷줄에 서 있던 옥주처럼, 숙경은 동국의 기념사진에서 똑같이 뒷줄에 서서 사진을 찍는다.¹⁷ 두 가장이 정치적 힘과 가장으로서의 권

16 염상섭(1987), 『젊은 세대·대를 물려서(염상섭전집8)』, 민음사, p. 270. 이후 같은 책에서 인용할 경우 본문에 (면수)로 표기함.

17 “십 년 전, 아버지가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던 날 저녁에, 축하하러 꼬여든 손님과 선거 사무원을 틈에 끼어서 전등불 밑에 박힌 커다란 사진이다. (…중략…) 오랜만에 그 사

위를 최대로 드러냈던 과거와 현재의 순간이 기념사진을 통해 교묘하게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당선날을 정점으로 서사에서 점차 그 권위를 잃어 간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는 한 쌍이다. 안도는 북한으로 납치된 이후 그 생사마저 알 수 없으며, 동국은 “지금쯤 이북의 어느 구석에서 쭈구리고 앉았을 안도가 눈에 번히 보이는 듯”(p. 310) 그의 ‘불행함’을 안타까워한다. 옥주 또한 납북 이후의 안도를 생각하며 “잘못하면 탄광 같은 데로 보낸다니, 그 지경이 되었다면 차라리 그 고생을 안하고 죽는 것이 낫지”(p. 257)라며 애처로움을 감추지 못한다. 한동국 역시 당선 이후 정치적 입지를 점차 잃어가며 옥주가 만든 ‘여성동지회’로부터도 직접적인 입당 압박을 받는다. 사무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옥주의 태동호텔 한 방을 빌려 사무실로 꾸렸으나, 그마저도 여당으로 입당하지 못하자 “월급을 못 주게 되니 붙어 있는 아이가 없게”(p. 382)되고, 결국 방을 뺄 눈치를 보는 ‘무소속의 설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안도와 한동국이 상징하는 단독정부 수립 1세대 정치인이자 가부장들은 1950년대 후반의 현실에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으로 기억되지도, 정력적인 활동을 지속하지도 못한다.

무소속 후보이자 국회의원이자 한동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은 작품이 연재되었던 당시 정치 현실을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작품에는 당대의 시대적 표지들이 직접적으로 기입되어 있는데,¹⁸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표지들이 삽입되어 있다.

진이 보고 싶고, 그때 그러했던 옥주여사가 어찌 얼굴만 내 보이고 저—뒤에 숨어 있었던지? 이때껏 무심히 보아 왔지마는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 싶었다.”(p. 280)

“한동국이 집에서 보내온 그날밤의 사진을, 신성이가 자세히 들여다 보다가 불쑥 이런 소리를 하였다. (…중략…) 그런데 사직동 아주머닌 요렇게 조— 뒤에 얼굴을 반만 내밀구 박으셨군요.”(p. 298) (강조: 인용자)

18 작품에 등장하는 ‘마리아 앤더슨’의 내한 소식, 시공관에서 열리는 ‘도로시 스미스’의 독주회, 육군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농구 결승전은 모두 1957년과 1959년 실제 이화여대 대강당과 시공관에서 진행되었던 공연들과 이화여고와 정신여고의 춘계 농구 결승전을 그대로 가리킨다.

「인제 아니까 호별방문이시군요. 그래 내게까지 선거운동이세요?」

「말야 받은대루 말이지, 이번엔 호별방문을 했다가는 걸리는 판인데, 마침 네, 생일이라기에 잘됐구나 하구 과자봉지나 사들고 왔다마는……」(pp. 264-265)

없는 돈에 이턱 저턱 끌어대서, 자유당 공천 후보만치야 못하지만 무소속으로서는 과히 남에지지 않게 하자니, …… 아니, 당장 이 마나님한테서도 백만원이나 올거다가 썼으니 변명 삼아서라도 자연 이런 군소리가 나오는 것이었다.(p. 268)

1958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5월 2일 시행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한동국이 신성의 생일을 핑계로 옥주의 집에 찾아오자, 옥주는 ‘호별방문’이라면서 자신에게까지 선거운동을 하느냐며 농담을 한다. 이들이 주고받는 ‘호별방문’은 1958년 선거법 개정에 의한 선거공영제에 따른 선거운동 제한을 지적하는 것이다. 1957년 4월경부터 논의된 선거법 개정은 80여 차의 협상을 통해 11월 9일 합의되었는데, 이때 후보자등록 신청 시 1인당 50만 원을 선거구선거위에 기탁해야 한다는 기탁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기탁금의 부담은 혁신계 및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선거공영제와 언론 규제 등의 조항에 양보를 하게 되었다.¹⁹ 선거 운동에서는 선거 운동원의 수 제한, 호별방문 금지, 선거 비용 제한 등의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민의원 선거법 제90조에 의해 선거비용이 일인당 100환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선거법 규정은 야당에게만 엄격하게 지켜지고, 자유당 선거 운동원들은 발급받은 야간통행증을 소지해 통행금

19 김진흠(2012), 「1958년 5·2 총선 연구: 부정 선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6-27.

지 시간 중 호별방문을 자유롭게 하며 선거 운동 중 다양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²⁰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앞서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대대적인 부정행위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국은 당선날 저녁부터 여야로부터 입당 압박에 시달린다. ‘찌프차’도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이도 묵묵하게 활동을 계속해오던 그는, 옥주가 호텔 지배인을 앞세워 사무실을 뺄 것을 종용하자 전에 없이 흥분하며 자신이 “XX당으루 머리를 틀어 박지 않아서 그러는 거”(p. 384)라며 소리를 지른다.

「하여간 떠나는 주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밀이 누설될가 봐서두
XX당 축들의 발길이 멀어지는 건 사실일 거니까」

영감은 그래도 사괘 보는 소리를 하니까

「온 별걱정을 다 하시네」

하고 옥주 여사는 가루 막았다.

「가만 있소. 세상은 언제까지나 XX당 천하란 법은 없으니까, 나두 반도
호텔 XX호실을 차지하구 들어앉을 날두 있을께니, 이렇게 축객을랑 마소」
(p. 385)

비록 사회적 입지와 힘을 잃어가면서도 무소속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한동국의 위치는 “여기에서[옥주의 침실에서] 묵지는 않았다. 붙들지도 않았다.”는 서술자의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여당 입당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바라는 옥주의 침실에 더 이상 묵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옥주 역시 이해관계가 사라진 동국을 더 이상 붙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동국이 말하는 ‘반도호텔 XX호실’은 당시 교통부 산하의 반도호텔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자유당의 사무실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지금

20 김진흠(2012), p. 70.

까지의 입당 강요에도 크게 흔들리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동국이 보이는 매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발화는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당 부분이 1959년 9월호에 연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염상섭은 이미 같은 해 5월 경향신문 폐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며 자유당의 언론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염상섭은 한동국의 발화를 통해, 안도-한동국이 상징하는 가부장‘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앞에서 최소한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치적 관계에서의 동국과 연애 관계에서 익수가 처한 위치가 미묘하게 겹치며 연애와 정치의 서사가 상호 환기된다. 작품은 동국이 무소속으로 입후보 등록 → 당선 → 입당 압박을 받는 이야기와 익수가 삼열과의 연애를 시작 → 약혼 약속 → 신성과의 교제를 압박받는 이야기의 결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두 이야기의 결말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 각자의 난처함은, 여당으로의 전향을 결혼·재혼과 빗대어 말하는 동국의 서술에 의해 동일한 차원이 된다.²¹ 하지만 정치적 정체성을 굽히지 않았던 한동국과 달리, 아들 안익수는 세 여성들 사이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고 휘둘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 익수는 고등학교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했고, 대학원까지 졸업해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도 강의하는 뛰어난 용모와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예술을 하겠다는 신성과 비교해서 “똑똑한 수재면서도 실제적인 인물”(p. 258)로 옥주에게 평가 받지만, 사실상 연애면과 진로면에서 모두 우유부단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익수는 삼열과 우산을 함께 썼던 ‘비오던 날’의 성적 충돌과 설렘을 반복적으로 기억한다. 삼열과의 ‘비오던 날’의 “행복한 추억이랄지, 이상한 흥분”(p. 271)은 신성이 자신의 생일날 입었던 “노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p. 254)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옥주의 계

21 “여당으로 전향을 하자니 지편이 달가워하여야 말이지. 헛하하……. 그것두 늙은 총각이 장가가기 어렵고, 젊은 과부가 개가하기가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허허허…….”(p. 444)

획에 이끌려 신성과 데이트를 반복하면서, 그는 삼열에게는 없는 매력을 신성에게서 발견한다. 책을 읽다가도 눈앞에 알진거리며 ‘분홍치마 자락’으로 상징되는 신성의 매력은 “이기적이지요 앞뒤를 사리는 삼열이에 비하여, 나무에서 갓 딴 과일처럼 서늘이 보얗고, 고운 살갗 밑에 감추어 두었던 향기를 거침없이 내뿜는 듯한 상글하고 감칠 듯한 젊음의 유혹”(p. 333)이다. 하지만 신성의 매력은 언제나 옥주의 ‘독일유학’이라는 경제적 후원과 함께 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교제 중인 삼열에 대한 죄책감을 수반한다.

어머니가 한동국 영감을 끌고 나가 주니, 뒤에 남은 두 남녀는 큰 시름을 잊은 듯이 하두 좋아서 마주 얼싸안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마주 보았다. 그러나 차마 그리할 용기들이 아니 나서, 신성은 살짝 발개진 얼굴을 감추며 돌아서 가서 스위치를 제쳤다. 별안간 방 안이 환해지니, 두 남녀의 흥분은 가라앉은 것 같았다.(p. 4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수는 어른들이 잡은 삼열과의 약혼식 날짜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도 신성과 삼열 사이에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신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삼열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평가되어 왔던 작품의 마지막 장면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도 익수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얼싸안고 싶은 충동’을 멈춘 것은 실상 신성이고, 비가 오니 자신의 집에 더 머무르라는 신성의 제안을 거절하지도 못하는 와중 옥주가 동국과 같은 차로 돌아가라고 데리러 왔기에 집을 떠났던 것뿐이다. 이를 두고, 익수가 옥주 모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삼열을 택하는 정신적 건강함을 획득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죽대 없이 휘둘리는 성격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 설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묘사되는데, 옥주가 던지시 암시하는 유학 지원에 몹시 끌리면서도 수학과 독일어를 전공한 교사 출신인 자신이 외국 유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익수에게 가장 큰 관

심은 ‘로켓과 우주시대’, ‘원자력’, ‘유도탄’과 같이 “주책없는 어린이 공상” 같은 것뿐이다.

하지마는 무슨 말 끝에던가, 옥주여사가 <가만 있어—>하고 생각이 있다는 듯이 하던 그 말을 생각하면, 무슨 길을 뚫어 줄 자신이 있는 말 같아서 일투의 희망이 아직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공상은 터무니없이 자꾸 꼬리를 잇달아 나갔다. —

신성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신성이는 음악 공부를 하고 자기는 원자과학, <로켓> 제작, …… 우주정복에 실질적 계획이 무엇인지라도 들여다보고 왔으면 하는 꿈이 성취되는 것이요, 구라파로 건너가서 독일, 오스트리아를 휘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

주책없는 어린이 공상 같으면서도, 역시 수단 조흔 박옥주 여사가 가만 있으라고 했으니 무어나 될 듯싶기도 하다.

끝없는 공상이 이렇게 획 도니, 신성이의 존재가 별안간 커다랗게 크로—즈, 옆 해온다. 노랑 저고리에 분홍치마가 또 눈앞에 알진거린다.(p. 277)

작품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우주시대’, ‘로켓’ 등은 1958년을 전후한 시기에 심화되고 있었던 미소 간 냉전체제를 환기한다. 물론, 1955년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통해 비동맹 중립국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1957년과 1958년에 걸쳐 남한에서도 중립국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²² 그러나 같은 시기, 1957년 베를린 선언부터 베를린 장벽 설치까지 서독과 동독을 둘러싸고 서방승전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은 ‘제2차 베를린위기’²³로 불

22 김도민(2020),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0(1), pp. 170-175.

23 1958년 후르시초프의 최후통첩에서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를 제2차 베를린 위기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1955년 제네바 회담의 결렬 이후 현상

리며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발사 등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을 내세우고, 핵무기와 유도탄, 미사일 등 공격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등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²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익수는 한동국에게도 열심히 “유도탄 이야기인지? 우주비행 이야기인지?”(p. 267)를 설명하기에 바쁘고, 유학을 보내줄 것 같은 옥주의 말에 원자과학, 로켓 제작, 우주정복을 배워볼 생각에 빠져있다. 중요한 것은 작품에서 익수의 생각들이 실질적인 ‘계획’이 아닌 ‘공상’으로 반복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상 끝에 신성의 ‘분홍치마’가 다시금 떠오른다. 신성에 대한 익수의 향의는 이렇듯 공상과도 같은 유학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옥주의 경제적 지원에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가부장‘들’의 대를 이어야 하는 ‘안도의 아들’²⁵은 납북된 정치인사인 자신의 아버지의 정치적 이념 및 의사(擬似) 아버지 한동국의 무소속으로서의 정체성을 물려받지 못한 채 예비 장모의 돈으로 외국 유학을 다녀올 공상에만 골몰한다. 심지어 결국에는 신성과의 결혼마저 소원해지며,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가부장’으로서의 새로운 세대의 남성은 정치·경제적 관계와 연애적 관계 모두에서 주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러한 실패한 아버지-아들의 대 잇기는 삼열이 보내는 최후통첩에 묘사되는 ‘목발을 짚은 채’ 절뚝거리는 불구의 형상으로 상징된다.

유지가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 미소 양 초강대국 간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김진호(2012), 「독일문제와 제2차 베를린 위기」, 『평화연구』 20(2),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p. 242].

24 「우주경쟁의 격화와 소련의 고민」, 《동아일보》, 1958. 2. 4.

25 “첫째가 안도의 아들이니 말이라할까? 첫째가 인물이 출중하고 둘째가 안도의 아들이니 농치기 아깝다 할까?”(p. 258)

“마음에 드는 익수가 탐이 난다. 아니, 안도의 아들이니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미덥스럽다는 것이요.”(p. 259)

“더구나 안도의 아들이니 또 군소리 같지마는 농치기가 아깝다.”(p. 292)

“그럴바에는 눈에 드는 안도의 아들 익수에게로 마음이 가는 것이었다.”(p. 297)

“익수는 안도씨의 아들 아내요?”(p. 372)(강조: 인용자)

3.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처/모’의 서사

3.1. 미망인에서 호주가 된 여성

박옥주는 태동호텔의 ‘중성적이고 호쾌한’ 여걸풍의 여사장으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남편과 함께 호텔을 경영하다가 ‘피난통에’ 남편을 여의고 전쟁미망인의 입지로 환도 후 호텔을 혼자서 재건해 경영하고 있다. 해방 후부터 정계의 사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했으며, 여관조합 이사직을 맡고 ‘여성동지회’를 꾸리는 등 스스로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 역시 가진 것으로 암시된다. 경제적인 능력은 해방기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도 언제나 상당했던 것으로 묘사되는데, 5·10 총선거를 준비하는 안도에게 익명으로 선거자금을 보내왔던 것, 안도가 납북된 한국전쟁 당시부터 피난지 부산에서 김숙경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것, 한동국에게 선거자금을 준 것 등을 포함하여 여가 및 문화생활, 자식교육, 패션 등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를 과시한다.

1916~1918년 정도에 출생, 1930년대 중후반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20대 후반에 해방을 경험했을 박옥주라는 인물은 해방 이전 염상섭 작품들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신여성’들과 동년배이다. 동시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 남편과 아이를 잃고 경제적 가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던 전형적인 전쟁미망인 세대이기도 하다. 옥주가 당당하게 태동호텔의 여사장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호주였던 남편의 죽음 이후 임시적이거나 호주권을 승계했음을 보여준다. 『미망인』, 『화관』에서 미망인의 재혼을 둘러싼 문제를 다뤘다면, 『대를 물려서』의 미망인은 재혼하지 않고 호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여호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나이에 시집두 우습지만, 영감 없이는 어렵구, 일자니 눈에 차는 것은 계집자식 있구, 그렇지 않으면 돈이나 바라구, 이 알량한 호텔이라두 휘

두르려구 덤비는 축이니, 이럴 수도 없구 저럴 수도 없구……천생 남의 영감에나 신세를 질 수밖에! 호호호……”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업을 하고 몸이 맨 데가 없는 여자에게는, 무슨 터놓은 특권이나 되는 듯싶이, 취담이기는 하나 꺼릴 것 없이 자기 속을 쏟아놓는 것이었다.(p. 314)

1960년 신민법 시행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구민법에 따라, 호주가 사망했을 때에는 제사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졌다. 제1순위는 적장자가 되며, 그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나이 순서에 따라 호주 상속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망한 호주에게 딸만 있고, 양자를 선정하지 않는 한, 제사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호주는 그 가족원 중 가장 나이가 우위인 모, 처, 딸의 순서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다.²⁶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 여성 호주가 입양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그 가는 폐가된다.²⁷ 즉, 외동딸인 신성이 유일한 직계비속인 상황에서 호주인 남편이 사망하고, 시어머니가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처’ 옥주가 양자 혹은 서양자 입양 전까지 호주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상속은 동시에 발생했는데, 1) 호주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 이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분채권을 청구 2) 일시적인 여호주도 단독 상속하고 사후양자가 있게 되면 그가 상속한다.²⁸

미망인 박옥주가 ‘처’이자 ‘모’의 신분으로 태동호텔을 포함해 죽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호주를 상속하고 그 재산

26 홍양희(2006), 「식민지시기 상속관습법과 ‘관습’의 창출」, 『법사학연구』 34, 민속원, p. 116.

27 김일주(2014), p. 36.

28 정궁식(2009),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50(1),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p. 304.

을 일시적으로 단독 상속했기 때문이다.^{29, 30} 작품 내내 안익수를 사위, 즉 서양자로 삼아 태동호텔을 물려주고자 하는 옥주의 은밀한 계획은 바로 이러한 정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옥주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여성으로, “다 생각이 있어 하는 일ियो, 하나라도 무심해 하는 일이 없는”(p. 404) 인물이다.

옥주라는 여성 인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사회적·젠더적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녀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적’인 여결풍의 여사장이며, 법적 정체성 역시 ‘임시적’이며 동시에 ‘비전형적인’ 호주이자 재산 피상속인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작품은 결국 옥주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옥주가 과연 누구에게 ‘태동호텔’의 경영권을 대를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그녀의 재산은 “태동호텔의 건

- 29 1921년 조선민사령 제2차 개정에 의해 친권에 해당하는 범조항은 일본 민법을 의용하여 적용하였다. 의용 민법 제877조에 따르면, 미성년 혹은 독립적인 생계를 가지지 않은 자는 부의 친권에 종속되고, 부가 죽은 경우 일가에 속한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또한 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관리를 물려주나, 기존의 재산보다 감한 것은 자녀 양육 및 재산관리 비용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의용 민법 제890조). 그렇기에, 직계비속인 미혼의 딸인 신성에게도 재산분할권이 있지만, 1958년 시점에서 21살 생일을 맞은 신성이 한국전쟁 당시 남편이 사망했을 때에는 미성년이므로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친권자인 옥주에게 귀속된다.
- 30 염상섭은 비슷한 시기 발표한 단편들에서도 가족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법 없어도 사는 사람」(1958)에는 친모, 계모(父의 첩/길러준 모), 법적 모(父의 처)가 함께 등장하고, 「얼얼진 시대풍경」(1961)에는 법적 권리와 혈연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갈등하는 장면들이 연출된다. 신민법에 대한 언급은 「수절내기」(1958)에 나타나는데, 일가의 장손인데도 계사할 자식이 없는 기명에게 동생 기정은 “새 민법에는 딸도 상속할 수 있다니 제 딸년이라두 들어 세울까요?”라고 묻는다. 형의 유산 중 집 한 채와 돈 백만 원이라도 탐이 난다면 큰딸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경은 염상섭 전후 단편소설들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중 연애담과 가족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묶어 “전후 혼란한 현실에서 가족 공동체의 질서의 변화를 그려내고자 한 것”이라 지적한다[김영경(2021), 「염상섭 전후 단편소설과 딸년의 감각」, 『우리말글』 88, 우리말글학회, p. 248].

물은 그만두고라도 명동거리의 지대만 해도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되겠기에! 그것이 도틀어 나중에 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을 생각할 제, 당대의 주인인 박옥주 여사의 눈이야 아직 시퍼렇지마는, 누구나 욕심이 아니 날 리 없”(p. 266)는 것으로, ‘부잣집 떠느리-공주님 찾기/되기’ 서사에 대응하는 ‘부잣집 사위-왕자님 찾기/되기’의 서사이자 그마저도 불발로 끝이 나는 이야기이다.

옥주는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사업가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옛사랑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는 감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수복 이후 남편이 고용했던 지배인을 갈아 치우면서 재건해온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있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익수가 ‘안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평생을 두고 잊힐 수 없는 커다란 존재”(p. 257)인 안도에 대한 옥주의 향의는 어떻게든 익수를 데릴사위로 삼아 과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을 매듭짓는 계산적인 일이자, 동시에 ‘순정’에서 비롯된 낭만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옥주는 안도에 대한 순정과 별개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안도의 절친이었던 한동국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사위를 가로챌 때와 마찬가지로, 남의 남자를 뺏는 전략 역시 성적인 매력과 경제적인 유혹으로 일관된다.

안도와 한동국의 아내들은 동국이 드나드는 옥주의 침실을 ‘더러운 침대’라고 욕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물들의 목소리와 달리 서술의 차원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생 남의 영감에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며 동국에게 일주일만에 한 번씩 ‘양복시중’을 들게 해달라는 옥주는 자유로운 여성이지만 결코 “집안 식구에 대해서 위신을 잃지 않”으며 “어리석고 개전치 않은 꼴”(pp. 312-313)을 보이지 않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즉, 결코 ‘음행이 상습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동국을 침실에 끌어들여서 술대접하는것쯤야 사업가로서, 또 혹은 아직 늙지 않은 과부로서 누가 나무라겠느냐는 배짱”(p. 313)을 가진 여성일 뿐이라는 것이 서술자의 태도이다. ‘사업가’의 목적 있는 욕

체적 교섭은 그야말로 ‘비즈니스적인 차원’이자 “사업을 하고 몸이 맨 데가 없는 여자에게는, 무슨 터놓은 특권이나 되는 듯”(p. 314)이 서술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박옥주를 ‘현모’와 ‘양처’는 아니지만, 윤리적·성적으로 타락한 여성 혹은 계산적이고 교활한 여성으로 형상화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사에서 박옥주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1) 이질적인 배경과 성향을 가진 부모 세대의 여성들을 정치적 모임으로 연합시켜 한동국을 압박하는 것과 2) 젊은 세대 남녀의 연애 판도에 개입해 익수를 압박하고 삼열이 익수와 헤어질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다. 먼저, 옥주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성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동국을 여당에 입당시키기 위해 ‘여성동지회’를 만든다. 고문에 한동국과 부인 장문숙, 회장에 박옥주, 부회장에 김숙경, 서기로 동네 반장 이희자를 둔 정치적 모임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은 이희자로, “거리에서 조고만 책사를 경영하는 젊은 인테리의 아내”(p. 331)이면서 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동회일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서사에 별달리 참여하지 않는 해당 인물의 존재는, 이 모임이 단순히 주인공 남녀들의 친목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지시한다. 옥주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해당 모임을 통해 결속되는 것은 전쟁미망인이자 경제인사, 납북미망인, 전형적인 가정주부, 지역사회 통제 및 관리와 밀착되어 있는 반장을 맡고 있는 다양한 배경과 조건을 가진 여성들이다. 발기준비회에서 여성동지회는 ‘우수회원 유치’와 ‘운동자금 마련’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고,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p. 424) 만난 예회에서 한동국이 반드시 여당으로 입당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을 내건다.

‘여성동지회’는 1950년대 전후 사회에서 정치·경제 및 문화면으로 확대되었던 여성들의 활동범위와 양상을 상징적으로 환기한다. 전쟁으로 인한 남성 부재, 고아와 과부의 폭발적인 증가, 경제적 불안,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과 전통적 가치의 혼란 등 전후의 사회적 문제들은 ‘민족적 위기’이자

“일상의 차원에서 개별 가부장의 위기로 체험”³¹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최소 30만 명 이상의 전쟁미망인들은 경제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1957년 서울시에서 조사된 여성 직업조사에 따르면 미망인의 88.8%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² 미망인이 아닌 여성노동인구 또한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³³ 농업과 상업, 공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여성들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공적 영역에 등장했으며, 이는 곧 혼인관계 및 친권과 재산권 등 법적 개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여성들의 대중적인 인식 변화와 남성들의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³⁴ 옥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단체로서의 모임은 서사 안에서 특정한 목표의식이나 신념으로 모인 연대라고 할 수 없으나,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1950년대 후반 전후 사회에서 표출되었던 여성들의 공적 욕망의 여러 갈래들이다.

두 번째로 작품 전체 서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옥주는 끊임 없이 삼열과 익수 사이를 방해하고 신성과의 교체를 성사시키고자 한다. 처음에는 생일 기념 식사와 극장 구경과 같이 우연을 가장한 일회적인 만남을 주선했다면, 점차 삼열과의 삼각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만남의 기회들을 마련한다. 삼열이 익수와의 이별을 결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은 정릉에서 발생하는데, 신성과 거리를 두겠다던 익수가 신성, 옥주와 함께 정릉으로 놀러온 것을 현장에서 마주친다.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은 옥주의 ‘남모

31 주인오 외(2013),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p. 343.

32 이임하(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pp. 128-129.

33 1952년 14세 이상 여성인구의 97%에 달하는 수가 경제활동에 참가했으며, 1958년에 이르러서도 전체 상업종사자의 35.4%를 차지했다[이임하(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pp. 93-94].

34 이와 관련하여, 1956년 『여성계』에 실린 글에서 남성기자는 가정을 ‘여성시대’로 호명하고, ‘남성시대’인 사회에 진출한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은 “힘은 없으면서도 그 가냘픈 몸으로 아양을 떨어가면서 남성들의 직장을 박탈하고 잠식해 뜯어가는가 하며는 경제력을 박탈하고 그리고 또 생리적으로 사로잡고”(p. 189) 말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적’이라고 말한다[「기자가 본 여성시대 중흥기」, 『여성계』, 1956. 8].

를 계획'에 의한 것으로, 반장집 아이가 소풍을 간다는 소식에 E여중 교사인 삼열이 분명히 따라올 것을 예상하고 정릉 나들이를 추진한 것이다. 옥주는 “무슨 남의 혼사에 시기가 나서라기보다도, 삼열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익수를 놓치기는 아까운 일이니, 어디 마지막으로 셋을 한자리에 놓고 저의끼리 정말 좋아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또 한 번 다루어 보고 싶”(p. 359)다는 생각에 이러한 ‘정릉놀이’를 꾸며내었던 것이다. 정릉 사건으로 인해 삼열은 옥주와 신성에게 분노하는 것뿐 아니라, 익수 역시 ‘씩어 빠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약혼식의 단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젊은 세대들의 연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는 신성과 익수의 결합 혹은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 삼열과 익수의 사랑과 같은 멜로드라마적인 교양서사가 아니다. 옥주의 개입은 삼열과 신성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두 딸이 가진 서로 다른 삶에 태도를 적극적으로 서사화시키며, 그녀들의 인식 변화의 계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3.2. ‘어머니-딸’로 물려지는 젊은 세대

나이 스물다섯, 아버지가 영어는 해 놓고 불일이라고 서두는 통에 영문학과를 택하여 졸업을 하자, 이것도 아버지의 이름 덕이라 할지, 순조롭게 모교에서 교장이 데려다가 교사를 시켰으니까 할 따름이지, 외국 유학을 하겠다든지 출세를 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서 시집이나 가서 안온히 가정을 지키고 들어앉았고 싶어 하는 삼열이다. 조숙한 탓도 있겠지만, 여자란 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시집을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또 시집이 가고 싶기도 하기는 하였다. 아버지의 정치운동이란테서 멀미가 나서 그런지, 서울 태생의 기질이나 자라난 가풍으로 그러한지 유명하여진다는 것이 도리어 머릿살 아프고, 여자가 출세하는 것이 싫지는 않으면서 엄

두가 안 나고 시들한 것이다. 또는 이해타산이겠지마는 시집을 갈 바에는 스물다섯이 넘기 전에 가야 하겠고, 단란한 가정이란 것을 생각할 제, 익수가 제일 알맞은 배필이려니 싶어 은근히 기대가 큰 것이다.(p. 296)

작품 초반의 삼열은 25세가 되기 전 적당한 남자와 결혼을 해 가정주부가 되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물론, 여기에는 적당한 ‘이해타산’과 함께 꾸리게 될 ‘단란한 가정’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독일 유학 후 “악단에 한번 크게 드날려 보려는”(p. 360) 신성과 달리 ‘암전한 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자신과 약혼을 앞둔 익수가 신성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자, 약혼을 미루고 준 마지막 기회를 익수가 무시하자 최후통첩을 보냄으로써 초반과는 다른 성격으로 변화한다. 약혼 파기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이 익수와 혼전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며, 삼열은 내면의 독백과 서술의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선택’과 ‘책임’의 문제를 공평(평등)하게 따질 수 있는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신성과의 데이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신성이 마련한 익수와의 삼자대면의 자리에까지 불러 나가는 모욕에도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히 자기의 앞길을 생각하여 보는 것이요, 오늘 만난 그 세 사람에게 대한 분풀이를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궁리”를 하는 “무서운 독기”(p. 362)가 서린 눈을 가진 인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탓을 할 일도 못 되고,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니다.(p. 296)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였다. 몸을 바쳤느니, 몸을 버렸느니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야 피할 수 있으면 피했어야 좋았고 또 그래야 옳은 일이지마는, 결코 큰 실수를 했다거나 무슨 꼬임에

빠졌다거나 하는 그런 후회는 조금치도 없다. **자기도 남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애욕이나 생리적 충동에 끌려서 자기의 책임 아래에 한 노릇이니**, 지금 와서 누구를 나무랄 일도 아니요 원망할 일은 못된다고 아무 굽질 것 없이 태연히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익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 마는, 언제든지 식을 올리자면 옹할 익수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다.(pp. 385-386)(강조: 인용자)

삼열에게 있어 익수와 의 혼전관계는 혼인을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남자와 대등한 입장에서의 애욕과 생리적 충동에 의해 일어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삼열은 충분히 ‘혼인빙자간음죄’를 들어 신성을 물리치고 익수를 협박하여 결혼하거나, 익수를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삼열에게 이 사건은 남녀의 차이로 인해 여성인 자신에게만 불리하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인식되지 않으며, 다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고 옳았을 잘못된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이유와 계기가 있었고, 그 결과 역시 자신의 선택만큼의 책임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책임을 떠맡는 만큼, 이유 없는 의무 역시 거부한다. “저편이 자기를 인제는 아무렇게 해도 좋을 자기 사람이 되었고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는 배짱이면야, 이편도 남자라 하고 장래의 남편이라 하여,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존경만 하라는 법이 있으랴”(p. 402)는 것이다. 삼열이 추구하는 ‘단란한 가정’은 남녀가 평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나뉘으로써 구성되는 공동체이다.

목발로 걸으시는 선생님이사라면 말이 끄찍스럽습시다마는, 선생님은 그 쌍지팽이를 거드랭이에 끼고 걷는 불편과 볼모 사나움을 느껴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원광으로 뵈오면 선생님 등 뒤에는 버팀목까지 비스듬히 서 있는 것 같아요. 호호호……. 하지만 선생님은, 왜 나는 나대로 똑바로 서서 으것이 걷지 않느냐고 하실 거예요. 실례가 되는 이런 객설 다 취소합

니다. 그러나 목발에 의지하시고 버팀목에 기대어 서 계시거던 과거는 얼른 다 집어 치우시고 곳곳이 서서 곧장 걸어 보세요. 반드시 제 앞에까지 와 보시라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은 선생께서 병환이 완쾌하셔서 따루따루……걸음마를 타실 때까지 연기해 두는 게 어때요 호호호……. 용서하세요.(pp. 390-391)

집안의 체면, 옥주의 경제력과 신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의 매력 사이에 서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익수에게 삼열은 위와 같은 최후의 통첩을 보낸다. 삼열의 입장에서 익수는 목발처럼 ‘짱지팽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등 뒤의 버팀목까지 비스듬히 서 있는’ 불구의 모습이다. 한쪽은 삼열에게, 다른 한쪽은 신성에게 마음을 두고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결단을 지연시키고만 있는 익수의 모습은 목발을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듯한 모양새이다. 이러한 익수의 불구상태의 ‘병환’이 완쾌되기 전, 자신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되기 전에는 약혼마저 할 수 없다는 것이 삼열의 판단이다.

삼열의 최후통첩에 담긴 무기한 약혼 연기의 결심과 익수에 대한 전면적인 모욕의 언사는 1950년대 중후반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염두에 둘 때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1955년 수십 명의 여성들을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른바 ‘박인수 사건’은 1953년 10월부터 시행된 형법 제 304조로 신설된 ‘혼인빙자간음죄’ 실시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인 파문’을 던진 사건으로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이었다.³⁵ 이때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로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박인수는 혼인빙자간음죄로는 무죄 언도를 받게 되고, 담당 판사의 “가치가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을 때 한하여 법은 그 정조를 보호하는

35 「박인수피고 대법원에 상고」, 『경향신문』, 1955. 10. 21.

것”³⁶이라는 발언은 당시 미혼여성들의 ‘순결’이 곧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조건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조’가 ‘인권’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였다는 사실,³⁷ 그리고 ‘음행 여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이자 낭만적인 일부일처제 결혼을 통해 정상가족 제도로 편입될 수 있는 ‘처/모’를 구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문화적으로는 경제적 생산 주체로서의 독신 여성을 ‘자유민주주의적 모델’로 긍정하면서도, 낭만적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인 ‘스위트 홈’의 환상을 통해 여성들을 ‘정상적이고 법적인’ 가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방법이 활용되었던 것이다.³⁸

하지만 삼열은 중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라는 ‘소박한 꿈’으로 되돌아가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익수와 그의 가족들은 약혼을 자꾸 미루는 삼열을 두고 “신성이한테 괜히 샘이 나서 그러는 거지 뭐야? 사랑 씹이로구먼!”이라고 말하며, “공연한 일에 자꾸 신경질만 내”(p. 378)는 여성으로 만든다. 삼열과의 약혼 후에도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반복하는 익수는 “총각이 여자를 알게 되어 붙이는 수작부터 대답”(p. 356)해지는 것이지만, 삼열의 행동은 결혼 전 여성들의 ‘히스테리’쯤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삼열은 아버지가 말하는 ‘사나운 소문’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규범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 불의의 사고로 정조를 유린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순결한 피해자’의 구도에서 벗어난다. 어디까지나 ‘떳떳한’ 여성 주체로서 삼열은 미혼여성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그 결과까지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

36 「법원경찰 정조관념에 견해차 무죄로 석방된 문제의 박인수사건」, 『경향신문』, 1955. 7. 23.

37 박정미(2012),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사회와역사』 94, 한국사회사학회, p. 277.

38 이선미(2009),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권보드래 외), 동국대출판부.

에서 정중현이 지적하듯, 삼열이 ‘새로운 시대의 모랄과 인간형’³⁹으로 제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익수라는 남성인물의 선택을 받는(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서 나아가, 혐오와 수치라는 규범적 통제에서 이탈하여 이를 ‘모욕’으로 남성에게 되돌려주는 여성 주체라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되어야 한다.

익수와 이별 과정에서 각성하게 된 삼열과 대조적으로, 신성은 음악 대학 피아노과 3년생으로 처음부터 독일유학과 예술가의 길을 꿈꿨으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악단에 크게 드날려 보려는’ 직업적 야망을 가졌다. 옥주의 마음과 달리 익수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신성은, 삼열이 자신과 익수의 관계를 오해하고 질투하는 모습에 대한 불쾌함과 ‘짓궂은 생각’, 그리고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자연스럽게 삼각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서사가 진행되어도 여전히 신성이 익수와의 ‘로맨틱’한 관계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녀는 유학이라는 자신의 목적으로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결혼을 고려한다.

그러나 하여간에 신성이만은 정말 아무 영문도 몰라서 그런지, 익수의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적 변화나, 아주 난처해하는 눈치에는 일항 무관심하게 초연한 기색이었다. (...중략...) 실제 문제로 곰곰 따져보면, 첫째 자기와 함께 독일유학을 할 자력이 있나? 어머니 말눈치 같에서는 어떻게 주선을 해주겠다는 말이지마는 그건 못 믿을 이야기요, 기껏해야 어려운 집 홀시어머니 밑에서 받으며 노릇을 하라는 것이니 그나마 그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될 것 같은 일이 아니다. 신성이 자신이 생각해봐도 자기와 같은 기질에 구똥이 아직 남은 남아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담당해볼 수도 없고 먹여 벌 것 같지가 않다. 더구나 독일, 오스트리아를 다녀와서 악단에 한 번 크게 드날려 보려는—아니, 겸손하게 말하여 예술에 정진해 보고자 하는 자기로서는 결

39 정중현(2014), p. 144.

코 가합한 자국이 아니라는 제 의사가 차차 뚜렷하여진 것이었다.(pp. 359-360)(강조: 인용자)

삼열과 익수 사이의 신경전, 익수 자신의 내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신성은 서술자의 말대로 ‘일향 무관심하게 초연한 기색’으로 대응한다. 어머니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신성에게 독일유학 외에는 모두 ‘시들한 일’일 뿐이다. 여기에 신성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남편을 모시는 현모양처의 ‘구풍’을 견뎌낼 수 없는 자신의 ‘기질적인’ 문제를 더해,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점차 뚜렷하게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듬직한 남편’을 맞아야 그 후에 예술도 가능하다는 옥주의 말은 신성에게 일종의 ‘유언’처럼 기능한다. 신성 역시 익수의 취향과 체격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녀에게 결혼은 언제나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독일유학에 비하면 익수는 “저만치 떨어져 있는 사람”(p. 369)에 지나지 않는다. 삼열을 속여 익수와의 삼자대면을 주선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음악회에서 자신을 반기던 다른 남성의 얼굴이 익수와 함께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익수가 자신을 두고 삼열에게 달려간다고 해도, 그녀에게 아쉬운 것은 동반 유학의 문제일 뿐 익수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미련의 감정이 아니다.

안익수와 한삼열의 관계를 깨트리고 신성과 이어주려는 옥주의 계획은 절반만 성공했고, 절반만 성공했기 때문에 ‘딸들’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의 서사가 가능했다. 신성의 개입을 계기로 가정주부를 꿈꾸던 삼열은 현모양처가 아닌 여성 주체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고, 익수와 결국 맺어지지 않는 신성 역시 결혼과 동반유학이라는 전형적인 결말에서 벗어난다. 미망인은 재혼하지 않고, 미혼인 여성들도 결혼하지 않는다. 아들/사위/남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딸들로 곧바로 서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즉, 삼열과 신성은 더 이상 자유연애와 결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삶의 조건과 인식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중학교 교사인 여성은 결

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고, 편모가정의 외동딸은 어머니의 돈으로 성장해 독일로 유학을 다녀와서 결국 호텔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열과 익수가 언제나 ‘한삼열’, ‘한익수’로 작품에 호명되는 것과 달리, 신성의 성, 즉 아버지의 성은 작품에 단 한 번 등장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⁴⁰ 옥주가 양자나 서양자를 들이지 않는 한 아버지의 ‘가(성)’는 폐가되고 어머니의 재산만이 남아 딸 신성에게 상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결론

『대를 물려서』가 연재되었던 1958년은 선거법 개정과新民법 제정이라는 커다란 정치적·법적 사건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작품 안의 시간은 바로 그 해 봄부터 시작된다. 서희경은 1954~1960년까지를 ‘이승만 이후의 정치’라고 지적하며, “권력승계를 둘러싼 소용돌이가 1960년까지의 정치를 지배했다”⁴¹고 본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헌법 제55조의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조항’이었는데, 1956년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제기된 개헌 논쟁 및 협상의 맥락 안에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 선거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은 모두 대통령직 승계와 정권 이양, 보수양당 체제의 형성 문제에 걸려 있었다.⁴² 그렇기에 내각책임제 개헌을 둘러싼 자

40 작품 후반, 음악회에서 지휘자 박정식이 신성을 보고 “오! 미스·박, 여기 오셨군요”(p. 367)라고 말을 거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기서 신성의 아버지의 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지만, 옥주의 성 역시 ‘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신성은 부계와 모계 모두에서 어떻게든 ‘박신성’이 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설정으로 보인다.

41 서희경(2016), 「1950년대 후반 ‘포스트 이승만 정치’의 현정사」, 『한국정치학회』 50(4), 한국정치학회보, p. 78.

42 서복경(2013),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 『선거연구』 3(1), 한국선거학회, pp. 125-127; 서희경(2016), p. 79.

유당과 이승만, 자유당 내부, 민주당 신·구파 사이의 갈등에는 ‘대통령 계승권’을 통한 권력 문제가 놓여 있었으며, 개헌 추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소속 의원들의 포섭 문제가 중요해졌다.⁴³ 따라서, 이 시기 염상섭이 무소속 국회의원의 입당 문제와 세 가정의 ‘대물림’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불안이니 부조리니 하는 유행어가 범람하게 된 뒤”⁴⁴에도 ‘리얼리즘’으로 일관했다는 작가의 문학적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다.

『대를 물려서』는 지금까지 남성인물들을 중심으로 ‘대물림’의 서사가 분석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물들은 타락한 구여성, ‘아프레겔’로서의 신여성, 남성의 최종 선택을 받는 대상화된 여성으로 의미화되어왔다. 하지만 작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1958년에서 1959년이라는 구체적인 전후 사회의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정치적·법적 문제들이었고, 정권 말기에서 ‘무소속’으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놓지 않은 채 힘을 잃어가는 ‘아버지-가장’의 세대와, ‘처·모·딸’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여성이라는 법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머니-호주’의 모습이다.⁴⁵ 그리고 그 다음 세대

43 1957년 초부터 개헌을 위한 자유당 측의 무소속 의원들의 포섭이 활발해졌으며, 1959년 11월 홍순희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개헌저지선인 1/3선이 붕괴되기에 이른다[김진홍(2018), 「1956~1957년 자유당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의 정치적 의미」, 『통일인문학』 76,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p. 216; 서희경(2016), p. 96].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57~60년까지 자유당과 민주당 측의 의석 확보는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44 염상섭, 「문학도 함께 늙는가 下」, 『동아일보』, 1958. 6. 12.

45 박옥주라는 인물은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의 여성 인물 형상화의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미망인』(『한국일보』, 1954. 6. 16~12. 6)에서 전쟁미망인 명신과 총각 홍식의 결합은 “얇전한 신앙감이 한 십만 나와서 젊은 전쟁미망인을 살려야 하겠다”(p. 398)는 전쟁미망인 원호희의 회장마님의 말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한다[염상섭(2017), p. 401]. 『젊은 세대』(『서울신문』, 1955. 7. 1~11. 21)에 등장하는 이혼 여성은 상처하고 아이가 있는 남자에게 재혼하라는 주변의 성화에, “키 가는 남의 자식들만 드센 속에서, 어떤 노인인지 시어머니를 받들어 가며 시집살이를 또다시 하다니 말이 됐는가?”(p. 28)라며 거절하고 “돈 이삼십만 환에 이 몸을 사지는” 남자의 뜻을 간파하고 코웃음을 친다[염상섭(2017), 『젊은 세대』, 글누림, p. 87].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의 재혼을 거부하는, 결혼 제도 안으로 당연하게 포섭되지 않는 여성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를 물려서』(1958~1959)

는 ‘아들/사위’로 이어지는 대물림이 아닌, 전형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제도와 낭만적 사랑의 신화에서 벗어나 있는 두 명의 딸들의 삶을 선취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부장적 호주제도가 가진 재산과 권력 분배의 문제를 역방향에서, 그리고 1950년대 시점에서 아직 오지 않은 현재로서 선취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서사로서의 『대를 물려서』의 정치성을 획득하게 한다.

염상섭은 1953년 2월,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 종결을 걸고 당선되어 공화당으로 미국 정권이 교체된 바로 그 시점,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를 논의하며 한국의 민주정치와 정치소설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다. 패전국인 일본과 달리 “해방되어야 할 군벌이나 천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얻은 것도 자유였고 잃은 것도 자유였는지”를 자문하며, ‘역사적 의의’를 가진 ‘문헌’으로서 문학 작품은 “이 커다란 과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았던가를 여실히 기록하여주는 작품이 나와야 될 것은 시대적 의의로도 가치 있는 일이요, 그러자면 정치라는 커다란 살림터의 커다란 부엌 속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⁴⁶이라고 지적한다. 1958년에서 1959년에 이르는 시기는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해, 2월 ‘진보당 사건’, 12월 ‘국가보안법 개정’, 다음해 4월 ‘경향신문 폐간’으로 이어지는 정치면에 있어 또 다른 ‘커다란 과도기’였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염상섭이 남한 단독정부 1세대 정치인과 그 자녀 세대의 복잡한 연애관계를 통해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라는 커다란 살림터의 커다란 부엌 속’을 세대와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는 문학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1950년대 후반 염상섭 장편소설의 정치성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

에 이르면, 총각 혹은 재처 자리에 어떻게든 밀어 넣어졌던 미망인 여성은 당당하게 호주이자 피상속인의 위치로 옮겨가게 된다.

46 염상섭, 「작가와 분위기: 정치소설이 나와도 좋을 때다」, 『연합신문』, 1953. 2. 19~20; 한기형·이혜령 엮음(2014), 『염상섭 문장 전집 III』, 소명출판, pp. 217-221.

참고문헌

자료

- 염상섭(2017), 『미망인』, 글누림.
 염상섭(2014),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 III』, 소명출판.
 염상섭(1987a), 『삼대』(염상섭전집 4), 민음사.
 염상섭(1987b), 『젊은 세대·대를 물려서』(염상섭전집 8), 민음사.
 염상섭(1987c), 『중기 단편』(염상섭전집 10), 민음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여성계』, 『자유세계』

논저

- 공종구(2021),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의 여성의식과 사회·정치의식: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1, 한국현대소설학회.
 김경수(1997), 「전후 염상섭 장편소설의 전개」, 『서강어문』 13, 서강어문학회.
 김도민(2020),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0(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영경(2021), 「염상섭 전후 단편소설과 말년의 감각」, 『우리말글』 88, 우리말글학회.
 김영경(2019), 「염상섭 후기소설 연구: 해방 이후 민족공동체의 서사적 상상」,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식(1987),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은경(2007),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일주(2014), 「일제하 친족 관련 법령과 호주권」,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호(2012), 「독일문제와 제2차 베를린 위기」, 『평화연구』 20(2),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김진흠(2018), 「1956~1957년 자유당 내각책임제 개헌 시도의 정치적 의미」, 『통일인문학』 76,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김진흠(2012), 「1958년 5·2 총선 연구: 부정 선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미(2012),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사회와역사』 94, 한국사회사학회.
 서희경(2016), 「1950년대 후반 ‘포스트 이승만 정치’의 헌정사」, 『한국정치학회』 50(4), 한국정치학회보.
 서복경(2013),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 체제」, 『선거연구』 3(1), 한국선거학회.
 이선미(2009),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권보드래

외), 동국대출판부.

이임하(2010),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이임하(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이태영(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출판부.

정금식(2009),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50(1),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정소영(2016), 「해방 이후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인오 외(2013),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정종현(2014),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젊은 세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2, 동악어문학회.

최애순(2013), 「1950년대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허윤(2013),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Undoing)」,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홍양희(2006), 「식민지시기 상속관습법과 ‘관습’의 창출」, 『법사학연구』 34, 민속원.

홍양희·양현아(2008),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사회와역사』 79, 한국사회사학회.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8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ABSTRACT

Women and Politics in Yeom Sang-seop's Novels of the 1950s

Yoon, Kuk-Hee*

Focusing on Yeom Sangseop's *By Inheritance*

This paper regards Yeom Sang-seop's *By Inheritance* as a female narrative in which a female figure with power actively moves to achieve her purpose, and attempts to explore its political meaning. *By Inheritance* captures the postwar period from a gender perspective, which is represented as 'mother-matriarch's psychology', an inverted shape of 'son-patriarch's psychology' in Yeom Sang-seop's short stories in the late 1950s.

Yeom Sang-seop focuses on the issue of joining nonpartisan representative and the political and financial 'inheritance' of the three families. The generation of 'father-patriarches' who lose power and the 'mother-matriarch', which symbolizes the legal identity of women as individuals, reflect the context of the 1958 election revision, fraudulent elections, and family law enactment. He call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perception of 'daughters' who deviated from romantic love and family norms, not 'son or son-in-law'.

Keywords Late 1950s, Yeom Sang-seop, Election Revision, Family Law, Mother-Matriarch, Family Norm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